

당신의 연금,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?

연금자산 기본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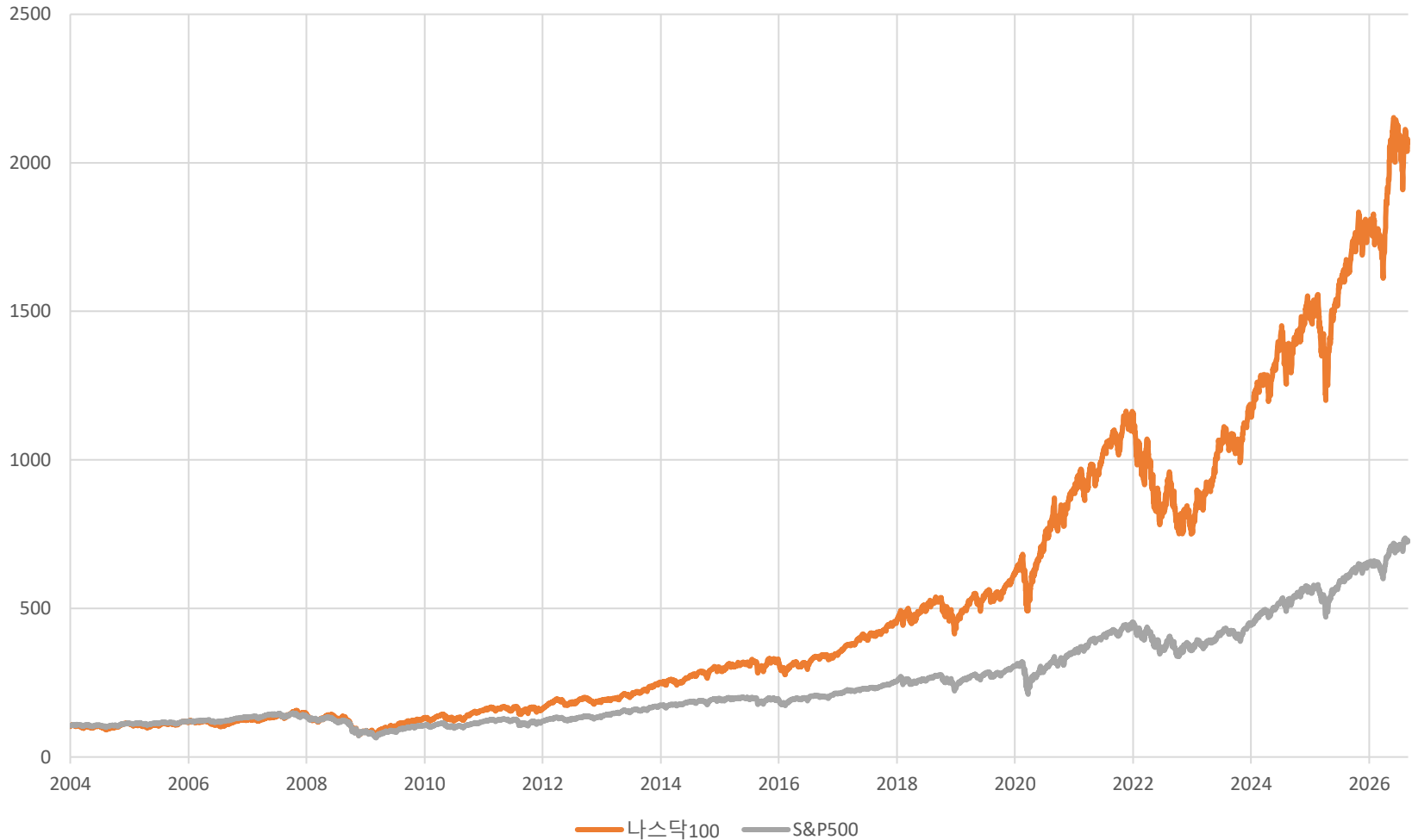
S&P500 나스닥100

당사 준법감시인의 승인번호가 없는 제안서는 당사 내부절차를 준수하여 정식 승인된 제안서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투자대상에 대한 판매 직원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되지 않는 사항의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,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정과 투자결과에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
1. 연금계좌에는 왜 '미국대표지수'가 어울릴까?
2. S&P500과 나스닥100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?
3. 두 지수를 함께 담으면 분산이 되는 걸까?

연금계좌에는 왜 ' 미국대표지수'가 어울릴까?

미국.. 아.. 이렇게나 올랐나?



출처: CheckExpert, 2003.11.30=100 기준 · S&P500, 나스닥100 모두 USD 기준

미국 자본시장이 가진 절대적 규모

1

글로벌 기축통화, 달러

전 세계 무역·금융 거래의 기준 통화로, 위기 시에도 자금이 몰리는 안전자산 지위

2

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

미국 상장 ETF만 약 5,000개 이상,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

3

전 세계 우량기업이 상장하는 곳

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우량기업들도 미국 증시 상장(ADR 등)을 선호

Top 10

세계 시가총액 상위
기업 중 미국기업 비중 압도적

AI·반도체

차세대 산업의
핵심 기업 대부분이 미국 본사

글로벌 표준

미국 빅테크가 만든 플랫폼이
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음

숫자보다 중요한 '구조'의 차이

1

단일 섹터 쏠림이 크지 않은 구조

11개 업종에 나뉘어 있어, 한 산업의 부진이 지수 전체를 좌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.

2

하락장 이후에도 회복해 온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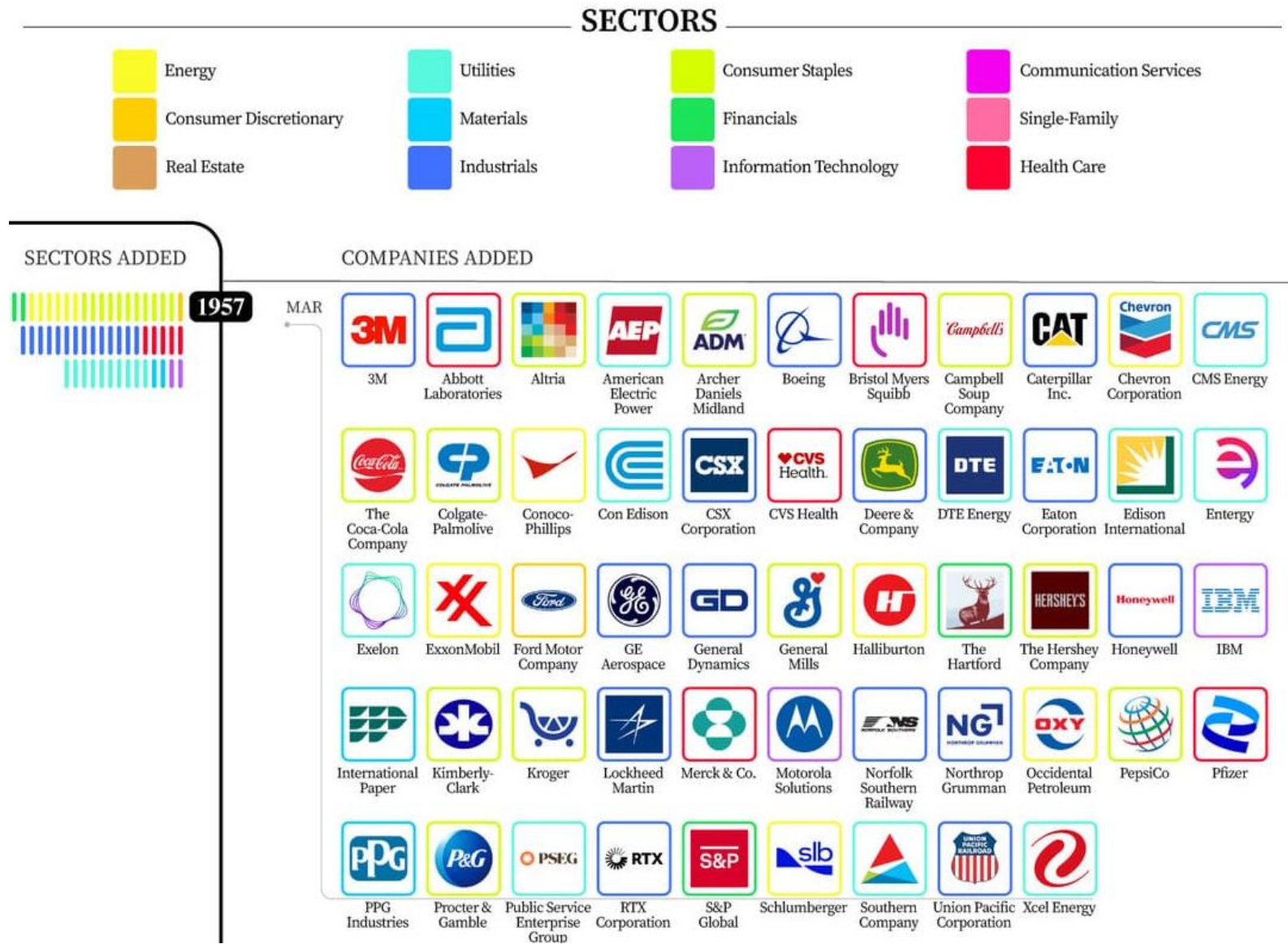
S&P500은 과거 여러 차례의 하락장 이후 이전 고점을 회복해 왔습니다.

3

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구조

특정 기업을 고르는 대신, 시장 전체의 구성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.

1부. 연금투자의 원칙 — 왜 미국 대표지수인가



출처: Madison Trust Company (2025년 2월 기준), 원년 지수 출범 이후 유지 53개 기업

지수는 스스로 신진대사를 한다

1

정기적인 종목 교체(리밸런싱)

S&P500, 나스닥100 모두 분기·연 단위로 기준 미달 기업은 빠지고 새로운 우량기업이 편입됩니다.

2

투자자가 할 일은 '유지'뿐

어떤 기업을 사고팔지 고민할 필요 없이, 지수 자체가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.

3

이것이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

개별기업 분석 없이도 시장의 성장을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.

잘나가던 기업도 사라질 수 있다

1

코닥 (Kodak)

필름 카메라 시장을 지배했지만 디지털 전환에 실패, 2012년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.

2

엔론 (Enron)

한때 미국 7대 기업이었으나 회계 부정이 드러나며 2001년 하루아침에 상장폐지됐습니다.

3

리먼브라더스 (Lehman Brothers)

158년 역사의 대형 투자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의 상징으로 파산했습니다.

개별주 vs 지수, 리스크의 크기

개별종목 투자

- 한 기업의 실적·경영 리스크에 100% 노출
- 정보 비대칭 — 내부자 대비 불리한 위치
- 감정적 매매(공포·탐욕)에 취약
- '다음 애플'을 찾아야 하는 부담

지수(ETF) 투자

-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
- 부실기업은 지수에서 자동 퇴출
- 성장기업은 지수에 자동 편입
-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구조

S&P500과 나스닥100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?

S&P500이란 무엇인가

1

미국 대형주 500개로 구성

뉴욕증권거래소·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대표 대형기업 약 500개로 구성된 지수입니다.

2

미국 시가총액의 약 80%를 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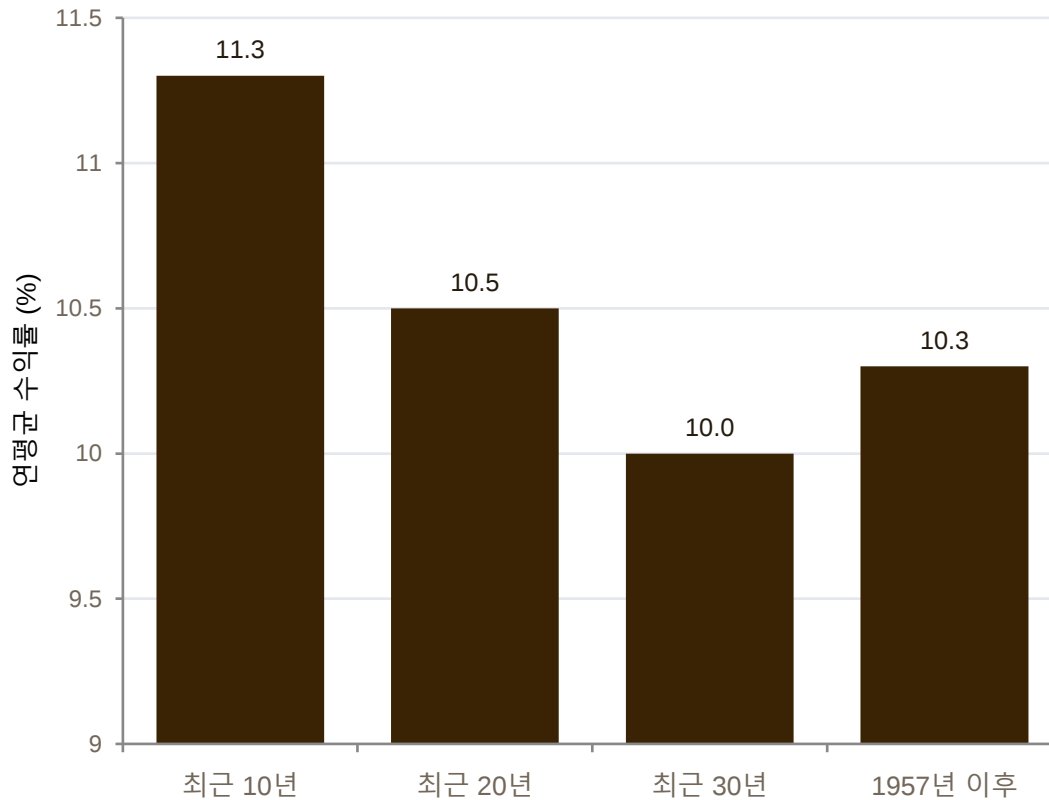
미국 주식시장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이 500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

3

11개 업종에 고르게 분산

IT, 금융, 헬스케어, 산업재, 에너지 등 전 산업군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.

'약 10%'라는 숫자의 무게



핵심 포인트

기간을 어떻게 잘라도 장기 평균은 대체로 9~11% 구간에서 수렴합니다.
. 특정 해의 급등락보다 '장기 평균의 안정성'이 핵심입니다.

위기는 반복됐지만, 시장은 회복해 왔습니다

1

닷컴버블 (2000~2002)

고점 대비 약 -49% 하락했지만, 이후 신고점을 회복하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.

2

글로벌 금융위기 (2008)

고점 대비 약 -57% 폭락했으나, 이후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.

3

코로나 팬데믹 (2020)

한 달여 만에 -34% 급락했지만, 회복까지 걸린 시간은 오히려 가장 짧았습니다.

이전 고점 회복까지 걸린 시간 — 닷컴버블 약 7년 / 금융위기 약 5~6년 / 코로나 약 5개월

주주환원, 미국 기업 문화의 핵심

1

꾸준한 배당 지급 문화

S&P500 편입 기업 다수가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'배당 귀족주'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.

2

적극적인 자사주 매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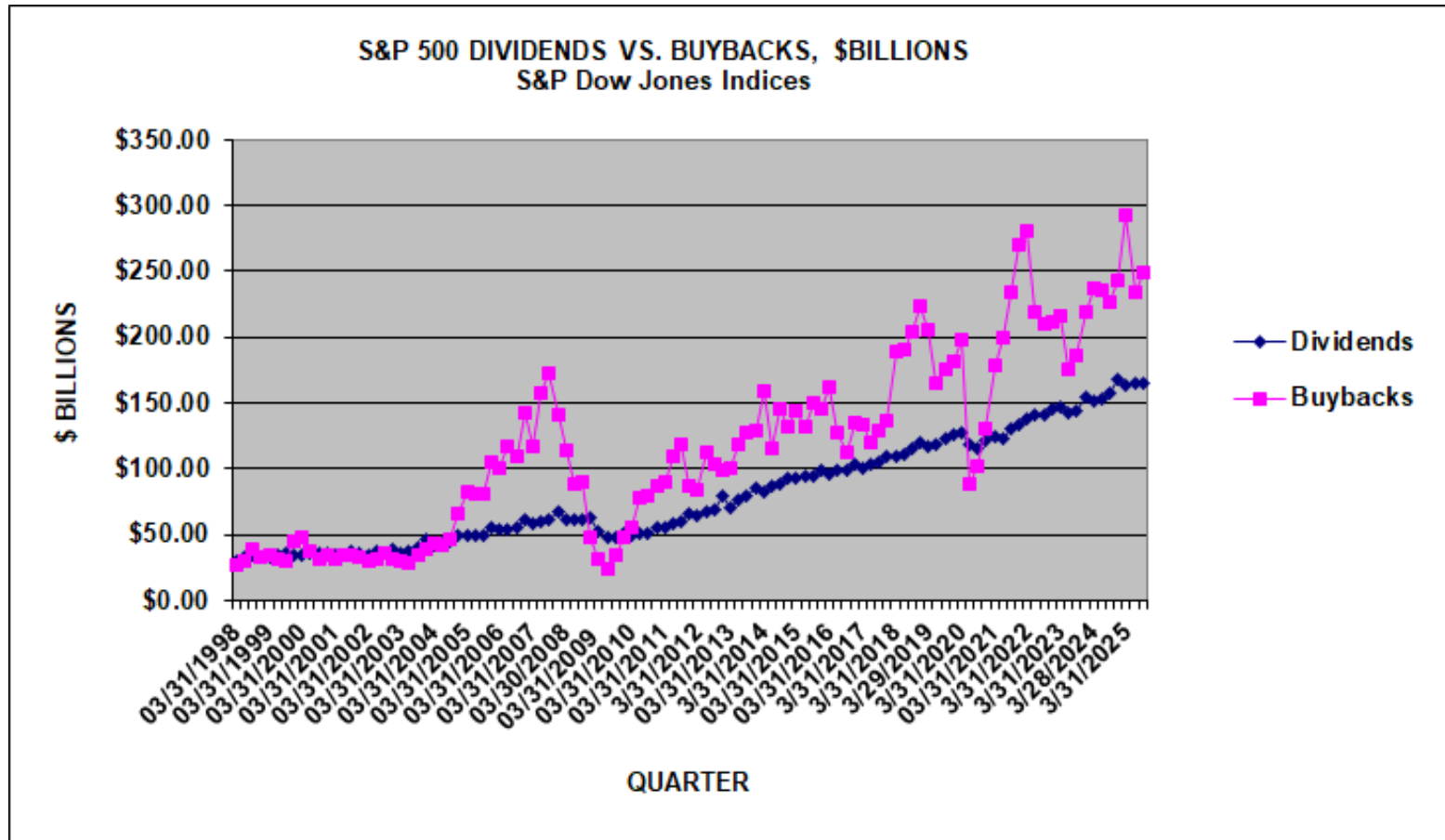
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.

3

경영진의 인센티브도 주가와 연동

스톡옵션 등으로 경영진 이해관계가 주주가치 극대화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미국의 화끈한 주주환원 정책



출처:S&P 글로벌

나스닥100이란 무엇인가

1

나스닥 상장 비금융 대형주 100개

금융기업을 제외한, 나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됩니다.

2

기술·혁신 기업에 집중

정보기술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, 헬스케어(바이오)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.

3

'빅테크'의 대표 지수

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아마존, 알파벳, 메타 등이 핵심 편입 종목입니다.

초과수익은 어디서 오는가

1

빅테크의 이익 성장 속도

매출·이익 성장률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기업들이 지수 상위 비중을 차지합니다.

2

구조적 성장 산업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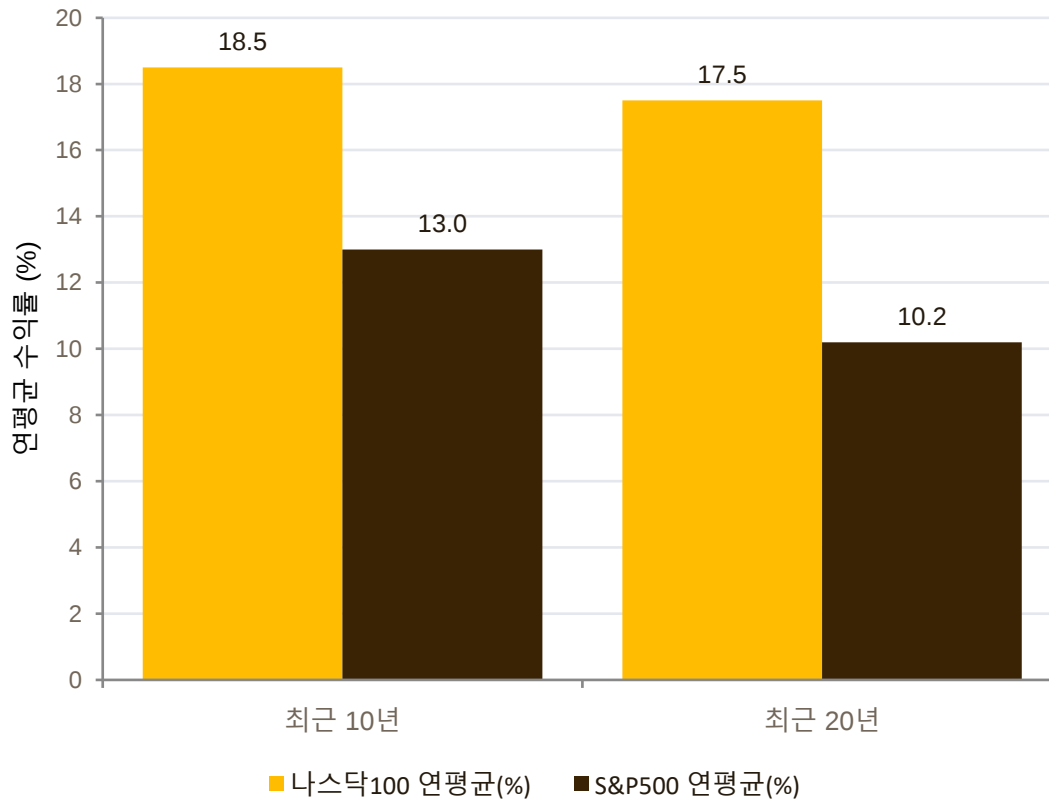
클라우드, 반도체, 플랫폼 경제 등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군입니다.

3

다만, 이 초과수익은 '공짜'가 아니다

높은 수익률은 그만큼 큰 변동성을 감수한 결과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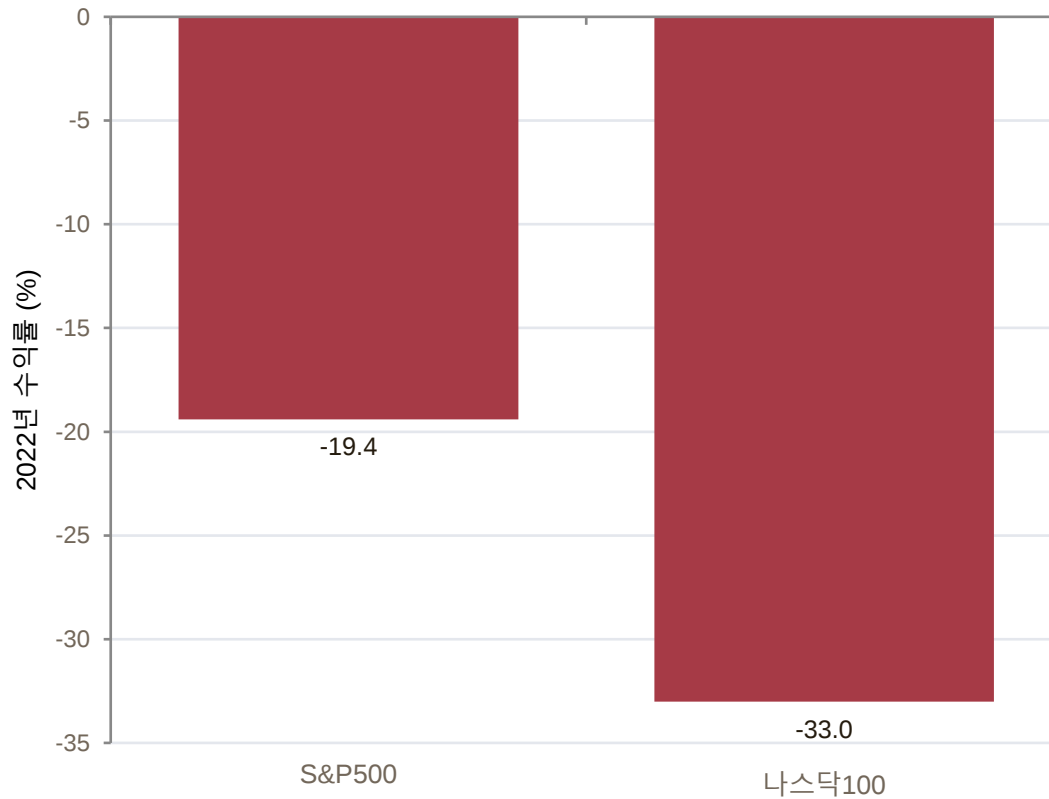
장기 초과수익의 역사



체감 배수

2007년 말 이후 누적 기준으로 나스닥 100은 S&P500 대비 약 2배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다만 이는 변동성을 대가로 얻은 결과입니다.

2022년, 초과수익의 반대편



주의할 점

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, 나스닥100의 낙폭은 S&P500보다 훨씬 컸습니다. '더 많이 오르는 자산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'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.

수익과 변동성은 함께 온다

나스닥100의 특징

- 장기 평균 수익률이 더 높음
- 동시에 연간 변동성도 S&P500보다 큼
- 소수 빅테크 종목 쏠림도 상대적으로 높음
- 금리·경기 국면에 따라 낙폭이 커질 수 있음

그래서 필요한 태도

- 단기 시세보다 장기 보유 관점 유지
- 월 적립식으로 매수 시점을 분산
- 포트폴리오 내 '성장 엔진' 역할로 이해
- S&P500과 함께 보유해 균형 잡기

두 지수를 함께 담으면 분산이 되는 걸까?

S&P500과 다른 업종 무게중심

업종	S & P 500 비중(대략)	나스닥100 비중(대략)
정보기술	약 30%	약 55~ 60%
커뮤니케이션 서비스	약 9%	약 15%
헬스케어	약 11%	약 6~ 7%
금융	약 13%	0% (편입 제외)
기타 산업재·소비재 등	나머지	나머지

S&P500 vs 나스닥100 한눈에 보기 (핵심요약)

구분	S & P 500	나스닥100
구성	미국 대형주 약 500개	나스닥 비금융 대형주 100개
성격	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	기술·혁신 성장주 집중
장기 변동성	상대적으로 낮음	상대적으로 높음
장기 수익률	연평균 약 10%	연평균 약 17~18%(최근20년)
역할	포트폴리오의 '기본값'	포트폴리오의 '성장 엔진'

S&P500과 완전히 다른 자산은 아니다

약 0.9

S&P500과 나스닥100의
장기 상관관계수(대략)

중복 다수

나스닥100 상위 종목 대부분이
S&P500에도 함께 편입

분산 아님

두 지수를 함께 담는 것은
'완전한 분산'은 아님을 유의

즉 S&P500 + 나스닥100 조합은 '리스크를 낮추는 분산'이라기보다, '성장주 비중을 조절하는 배분'에 가깝습니다.

두 지수를 함께 담을 때의 체크리스트



1. 두 지수의 중복 비중을 먼저 확인하기

나스닥100 상위 종목은 대부분 S&P500에도 들어 있습니다. 합산 비중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.



2. 목돈은 한 번에 넣기보다 나눠서 진입하기

3~6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면 특정 시점의 고점 매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

3. 이미 하고 있는 적립식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기

변동성을 이유로 정기 매수를 멈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.



4. 레버리지·단기 매매는 지금 특히 피하기

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 속도도 함께 빨라집니다.

가장 흔한 두 가지 실수

실수 1. 타이밍 맞추기

- "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"라는 생각
-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
- 관망하는 동안 반등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음
- 해결책: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매수

실수 2. 몰빵과 쓸림

- 특정 테마·종목에 자산 대부분을 집중
- 단기 급등 종목을 뒤쫓아 진입
- 지수 대신 레버리지 상품에 장기 투자
- 해결책: 정해진 배분 비율을 지키는 원칙